

NEWS

2025년 3월 6일 목요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광주·전남 85곳 선출

미국 손해 보는 동맹 '한국' 트럼프, 의회 연설서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특정해 거론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운을 띄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각해봐라. 4배나 높다.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면 '무안 도자산업'서 계속

무안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도자(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2023년 무안도자복합산업특구지역으로 지정, 국가적 차원의 도자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점토 원재료 확보에서부터 생산 및 도소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도자산업의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는 평가다.

무안군은 도자분야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단순한 제조 지원시설을 넘어 신제품 개발, 디자인 공간, 전시 판매장,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적인 도자 제조업과 지역의 대표적 관광자원인 도자문화를 연계해 산업·관광·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자 소공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관광객들에게는 차별화된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윈-윈 전략을 통해 산업과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각각 첨단 제조업과 전통 공예산업이라는 특색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센터를 통해 개별 소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동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 소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선관위 위탁... 투표율 광주 32.6%·전남 51.6% 85곳 중 59곳 무투표로 '당선'... 임기 21일부터 4년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광주·전남 38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광주·전남 모두 절반 이상의 금고가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돼 실제 투표가 진행된 곳은 30%에 그쳤다.

5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회원 직접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

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의원의회의를 열어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절차를 완료했다.

광주는 5개구 총 35개 금고 가운데 11개 금고에서 회원 직접 투표가 진행됐으며 24개 금고는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무

투표 당선됐다. 이사장 11명을 직접 뽑는 광주지역 금고 총선거인 수는 5만6103명으로 이 가운데 1만8281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종 투표율은 32.6%로 마무리됐다.

전남은 17개 시·군 50개 금고 가운데 15개 금고(11곳 직접 투표-4곳 대의원 간선제)에서 투표가 이뤄졌으며 35개 금고는 후보자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사장 15명을 선출하는 전남지역 총선거인 수는 4만8465명으로 이 가운데 2만 488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최종 투표

율은 51.6%로 마감됐다.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는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선출된 광주 35곳, 전남 50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기는 21일부터 4년간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과거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졌으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직선제가 도입됐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금

고별 이사장 선거 관리를 구사군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가 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사장 선거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제고해 유착·밀실 선거 비판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민주성과 이사장 등의 대표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사장의 업무 추진력 강화 및 금고의 민주적 관리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기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의료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최우선 배정"

김영록 도지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원'을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조규홍 장관이 그동안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대학통합'까지 이끌어 냈다"라면서 "이는 의대설립을 절실히 바라는 전남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의 결과로 반드시 전남도에 국립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 현안을 해결하면서, 정부가 정부합동 담화문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의대 증원과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목포대-순천대 양 대학의 통합도 이뤄져야 하고,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추진도 돼야 한다"며 의대설립 추진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의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복지부 장관에 이어 교육부,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의료계도 계속해서 설득하는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광복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본격 추진

고광원 행정부시장, 국토교통부에 건의서 공식 제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고광원 행정부시장이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관광객들을 모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 및 경제계 등의 호소문과 지난달 24일 광주시와 전세기 유치업체

등이 체결한 협약이 담겨 있다. 광주지역 관광업계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 여행취소 2만9000여명, 300여원의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광원 부시장은 이날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국제선 임시취항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역민들의 국제선 취항에 대한 요구와 관광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과거 광주공항이 이미 중국, 동남

아 등 정기편을 취항한 바 있어 국제선 취항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달 18일 '관광업계, 시민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며 국토부에 국제선 취항을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시는 지난 24일 광주관광협회, 여행사, 전세기 유치업체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업무협약'을 맺고 준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건의를 받은 후 이달 내 취항 가능 여부를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승인하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을 설치하고 국내선과의 동선을 정비하는 등 국제선 취항 준비에 착수한다.

시는 이미 국제선 운항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은 서두를 경우 2개월 정도면 시설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설 정비 후에는 항공사가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하고, 국토부가 다시 승인하면 운항이 성사된다.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동계 시즌부터는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공항 참사 원인으로 지목돼 개선 공사 대상인 광주공항의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도 9월까지의 공사가 끝날 것

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이 운항하면 무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광주로 올 것이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한 빨리 국제선을 취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공항은 현재 광주 군공항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2835m길이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07년 까지 일본과 동남아 등지로 정기편과 전세기 운항해 왔지만 같은 해 11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국제선 기능을 넘겼다. 지금은 서울·제주 등 국내선만 하루 30여편 정도 운항하고 있다. 대형기종을 사용한 미국 본토 운항까지는 어렵지만 중형 기종을 활용해 동남아·하와이까지는 운항이 가능하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시립중앙도서관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